

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별 5차 회의 결과 보고

1. 윤리제도 분과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2022. 11. 30.(수), 14:00 ~ 16:00, K-META 회의실/온라인 회의실
- (참석자) 산업계, 법조계, 학계, 유관기관, NIPA, K-META 총 12인 참석

□ 주요 논의내용

-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우선 대응분야 선정 필요
 - 과기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, 규제개선보다 메타버스 진흥법 지원을 통해 받을 맞출 필요 있음
 - 디지털 화폐, 크리에이터 보호 등 민감한 부분보다 진흥을 위한 기본적 사항부터 협의 진행 필요
 - 메타버스 진흥법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과 같은 인접 진흥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구체화하여 정비되어야 함
 - 이용자의 민감 정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 요건 강화
- '23년도 메타버스 윤리제도분과 운영 방안
 - '23년도 얼라이언스 운영방안과 관련해 윤리제도분과 차원에서 윤리원칙, 탈게임, 자율규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 필요
 - 윤리원칙은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
- 기업 측면에서 메타버스 이슈
 - NFT와 가상화폐는 메타버스 내 경제생태계 구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NFT와 가상화폐를 통일된 형태 혹은 호환성에 대한 협의와 글로벌 플랫폼이 집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협의가 필요

- 아바타 성범죄의 경우 법규제를 통해 모두 막을 수 없기에 교육·사회·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예방 활동 필요
- 어뷰징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있지만, 플랫폼과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사업자의 관리 책무도 중요
 - * 어뷰징(abusing) :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검색 통한 클릭수 늘리기 위해 동일 제목의 기사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인기검색어를 올리기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것 등

2. 기업육성 분과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2. 11. 24.(목) 16:00 ~ 18:00/K-META 대회의실
- (참석자) 산업계, 학계, NIPA, K-META 총 8명 참석

□ 논의내용

1. (발표)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인터오피러빌리티(상호연동성)에 대한 의견 수렴
 -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인터오피러빌리티(상호연동성) 필요성 검토
 - 중소·중견기업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모객과 모든 기능, 서비스 개발이 어려움으로 상호 연동이 필요할 수 있음
 -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아닌 기존의 아바타, 아이템의 연속되는 경험의 연장선이므로 탈중양화 된 에셋의 소유권을 제공하는게 중요함
 - 아바타, 개인의 프로파일, 아이템, 월렛 등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
 -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들도 디지털화해서 특정 병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방안 검토 필요
 - 다만, 검색을 통해 자동으로 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의 검색데이터 등이 무분별하게 오픈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

-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아바타를 연동하는 것은 기업의 BM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데, 아바타 아이템(옷 등)은 판매상품이라 아직은 침해한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

o 멀티버스 포털에 대한 논의

- 웹 2.0처럼 기업들은 중앙집중식으로 정보와 유저를 가져오기를 원하며, 대기업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른 곳과 제휴 맺어 입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함
- 탈중앙화 방식인 웹3.0으로 넘어갈 경우 웹 2.0 방식을 고수한다면 실패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됨
- 기존의 콘텐츠 및 에셋 등을 3차원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변경 시킬 수 있는 플러그인 등이 개발된다면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

o 중앙집중형 및 탈중앙형 멀티버스 연동구조 중 적합한 연동구조에 대한 논의

- 소프트웨어 용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, 만일 웹 XR같이 용량 부담이 없는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면 충분히 탈중앙화 멀티버스 구조 채택 가능
- 어떤 형태든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

o 개별 메타버스 플랫폼의 참여 유도요인과 저항요인에 대한 논의

- 멀티버스 포털에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에게 클라우드 운영비 등 기업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해당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2. '23년도 기업육성분과 운영방안 논의

- o 기업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여 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도요인이 있어야 함
- o 기업육성분과 논의사항에 대한 일관적인 방향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담론을 발전시킬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
- o 기업육성 분과에 기업회원을 더 늘리고 특히 대기업 및 리딩기업을 참여시켜야 더욱 생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3. 인재양성 분과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2022. 11. 17.(목), 14:00~16:00/ 온라인 회의(Zoom)
- (참석자) 산업계, 학계, 유관기관, NIPA, K-META 총 13명 참석

□ 주요 논의내용

1. 수준별 현장 맞춤형 메타버스 인재양성 특화 사업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발표

○ 발표 1. 메타버스 인재육성 발전방향과 고급인력 양성 방안

- 기업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해외 인력 공급 방안 제언과 정부 차원 국내 인력 양성 초점 정책과 비교, 개선 및 보완 사항
- 정책 제언 1.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한 '해외 인턴십 프로젝트'(자자체 비자 운영 해외 인력 파견지역 센터 운영 등)와 창업지원 연계, 국제 자격 교육 개설

○ 발표 2. 산학연계 조기전력화 이원화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 '메타마이스터'

- 제언 프로그램과 관련 인재양성 적용 대상(대학생, 고등학생) 및 정규수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, 현 교육 과정과의 적합성, 제도적 보완점 등 실현 방안
- 정책제언 2. 산·학연계 현장 맞춤형 '메타버스 마이스터 칼리지'*제언

* 메타버스 마이스터 칼리지 : 기업과 학교 두 장소에서 각각 실무교육(OJT, On-the-Job Training)과 이론교육(Off-JT, Off-the-Job Training)을 병행하는 이원식 교육 형태

○ 발표 3. 장애인 맞춤형 인재양성 및 메타버스 일자리 창출 방안

- 유연 근무제 측면에서 장애인 한정 또는 장애인 포함 경력단절 여성 및 시니어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등 적용 방안
- 정책 제언 3. 메타버스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직무 교육 시스템 구축

2. '23년도 인재양성분과 운영방안 발표

o 발표 4.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인재양성분과 운영방안 제언

- 정부 인재 양성 사업 개선사항과 추가로 산업 맞춤형 수준별 교육 과정 개설 정부 및 타 기관(협회) 협력 등 관련 분과원 추가와 향후 논의 사항 등 방향 설정
- 현재 정부가 수행 중인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 각 수행 주체들을 분과원으로 추가, 발표를 통해 개선 사항 등 논의
- 타 기관(협회)(메타버스 Adopters 영역, 의료메타버스 학회, 육군사관학교, 교육사령부 등)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논의 추진
- 정부 수행 중인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등 포함 산업 맞춤형 수준별 교육 과정 개설 중점 추가 논의
- 정책 제언 4. 사업모델(메타버스 플랫폼 범 Visual산업 Value-chain, XR디바이스 중심 순수 요소기술 사업, 플랫폼-디바이스 수직통합), 성장속도, 인력 수요 등 수요조사에 따른 장·단기, 수준별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 추진
- 정책 제언 5. 메타버스 Builders(제공 직종) 위주의 인력양성 정책에서 미래 확장성이 있는 메타버스 Adopters(요소 활용 직종) 관점으로 인력양성 방향 확대

4. 기술표준 분과

□ 회의 개요

- o (일시/장소) 2022. 11. 29.(화), 16:30~18:30/K-META 대회의실
- o (참석자) 산업계, 학계, 연구계, NIPA, K-META 총 12명 참석

□ 논의내용

1. '22년도 기술표준분과 활동경과에 따른 정책제안(안) 도출

- o 정책제언 1. 책임있는 경제활동을 위한 탈중앙화 본인인증 체계 구축

-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아바타 경제 활동 시 세금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이 있음
자기 주권 신원을 보장해주는 DID*와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될 SBT*를 결합한 새로운 아바타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적합한 보안 기술로 보여짐
 - * 자기 주권 신원(Self Sovereign Identity) : 중앙 등록 메커니즘 없이 활용되는 신원 정보 체계. 정보 주체 스스로 신원에 대한 증명 관리,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제출 대상 통제 가능
 - * DID(Decentralized Identifier) : 탈중앙화 신원증명(W3C의 주도로 DID 표준 개발중)
 - * SBT(Soul Bound Token) :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양도할 수 없는 토큰
- 결론 : 신원인증 이슈해결 위한 정책방안(정책과제, 기술육성 등), 예산(안) 반영하여 제출하기로 함
- 정책제언 2. 메타버스 서비스의 소비자 경험조사, 메타버스 서비스의 중복 개발요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 - 현재 메타버스의 개념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소비자 니즈 파악 없이 여러 서비스가 제공중인 상태임. 플랫폼과 서비스는 사용자 니즈에 맞춰 서비스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
 - * 사용자 : 여러 플랫폼 설치 및 각각 서비스 업데이트 중복 방지할 수 있음
 - * 개발사 : 콘텐츠 공급을 위한 개발사의 불필요한 중복 개발 방지할 수 있음
 - 결론 : 소비자 조사, 가이드라인 2개 주제로 분리하여 제출하기로 함
- 정책제언 3. 메타버스 유형분류 및 평가 기준
 - 메타버스 정의 및 개념 수립의 국내 연구 성과는 의미있는 활용이 가능함. (ex. 여러 메타버스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, 필요시 해당 내용을 글로벌 포럼에 한국의견으로 제안도 가능해보임)
 - 얼라이언스 회원사 대상 결과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수요제공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참여 기회 제공도 가능함
 - 결론 : 정책과제 대상으로 적합하고 예산(안) 및 정책제언내용 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함

2. '23년도 기술표준분과 운영방향 논의

- 산업계 분과원 참여 확대 필요
 - 국내 메이저 기업(네이버, SKT 등) 참여 독려하여 기업의견을 듣고 분과 내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